

지역 매 아리

정읍시, 설명절 귀성객 맞이  
공중화장실 집중 점검 실시

정읍시(시장 유진섭)는 설 명절 기간 귀성객의 고향방문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내 공중화장실에 대하여 내달 1일까지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

기간 중 불법촬영 카메라를 이용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시설 내 여성화장실에 대하여 집중점검 할 계획이다.

점검 대상으로는 역, 터미널, 전통시장 등의 총 73개소 공중화장실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겨울철 동파방지로 인한 환기부족에 따른 화장실 내 악취발생 여부, 청소상태, 편의용품 비치, 시설물 파손 여부, 여성화장실 비상벨, 불법촬영 물대카메라 설치 여부 등이다.

공중화장실 관리상태 점검결과 미비한 부분에 대해 관리부서와 시설물 소유자로 하여금 다음달 1일까지 개선 될 수 있도록 하여 고향을 찾는 귀성객들이 청결하고 편리한 공중화장실을 이용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는 시민 여러분들도 화장실을 깨끗하게 사용하여 선진 화장실 문화가 정착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달라"고 당부했다.

/정읍=김대환기자

부안군, 국가유공자 예우  
보훈수당 지급대상 확대

부안군은 부안군 호국보훈수당 지원 조례가 개정·시행됨에 따라 올해부터 호국보훈수당 지급대상을 확대하고 지급액을 인상한다.

이에 따라 지급대상이 기존 2014년 12월 이후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미망인에서 참전유공자의 사망일과 상관없이 참전유공자 미망인 전부를 확대되며 전상·공상군경 상이등급 1~6급까지의 대상자와 고엽제후유의증 수당 수령자에게도 지원돼 총 1100여명의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에게 호국보훈수당 지원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참전유공자 및 미망인(2014년 12월 이전 사망 포함), 전상·공상군경 상이등급 7급 및 미망인, 무공·보국수훈자 및 미망인, 전몰·순직군경 유가족에게는 기존 월 1만원에서 월 10만원으로 지급액을 인상하고 신규 지급대상자인 전상·공상군경 상이등급 1~6급 및 미망인, 고엽제후유의증 수당 수령자는 월 6만원을 신규로 지급한다.

호국보훈수당 지급대상은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법에 따라 부안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해야 하며 대상자는 신청서류를 구비해 거주지 읍·면사무소, 부안군청 주민행복지원실에 신청하면 된다.

/부안=김석진 기자

“위도 앞바다는 우리 관할권”

부안군, 헌법재판소  
변론서 강력 주장

부안군이 위도 앞바다와 곰소만 해역에 대한 부안군 관할권 인정은 당연한 것이라고 강력 주장했다.

부안군은 24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위도해상경계 및 곰소만 갯벌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변론에서 위도 앞바다와 곰소만 해역에 대한 부안군 관할권 인정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사례들을 제시하며 합리적이고 공평한 해상경계의 재확정을 촉구했다. 부안군은 오래 전부터 이어져 온 위도 앞바다에 대한 부안군 관할권의 계속적인 유지와 불합리하게 설정돼 지역주민이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 곰소만 해역의 해상경계 재조정을 위해 지난 2016년부터 고창군과 법정다툼을 벌이고 있다.

이날 진행된 변론은 2016년 고창군이 위도 앞 바다에 대해, 지난해 부안군이 곰소만 해역에 대해 각자 자신들의 관할해역이라며 헌법재판소에 상대방을 대상으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청구에 따른 것으로 지난해 12월 27일 두 사건이 병합되면서 동시에 변론이 이뤄졌다.

부안군은 관악현 부안군수를 비롯해 이한수 부안군의회 의장과 부안군의원, 최진규 부안수협 지도상무, 이우현 어촌계협의회장, 지역주민 등 약 50여명이 참석해 지역사회의 뜨거운 열망과 주민의 높은 관심도를 보였다.

이날 변론은 양측 법률대리인의 모두 변론과 증인신문, 마무리 변론 순으로 진행됐다.

부안군은 변론에서 위도 앞바다



부안군이 24일 헌법재판소에서 위도 앞바다와 곰소만 해역에 대한 부안군 관할권 인정은 당연한 것이라고 강력 주장했다.

해역의 경우 쟁송해역이 1500년 이상 부안군 소속으로 유지돼 온 역사성과 지난 1963년 위도가 전남 영광군에서 전북 부안군으로 편입되면서 그 주변해역도 함께 편입된 점, 50년 이상 부안군에 의한 각종 인허가 처분과 불법어업 지도단속 등 행정 권한을 지속적으로 행사했고 고창군은 이에 대해 단 한 번의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해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는 점 등을 중점 부각해 관할권을 주장했다.

또 쟁송해역은 위도 주민들의 삶의 터전으로 중요한 생활기반으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 이용수요나 주민의 사회경제적 편의 측면에서도 부안군이 고창군과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월등하다는 점, 해상풍력단지 조성으로 조업구역이 상실되는 주민들의 경제적 이익의 고려 등을 제시하며 쟁송해역에 대한 부안군 관할 유지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강하게 피력했다.

이와 함께 곰소만 해역의 경우 불

법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형평의 원칙에 따라 등거리 중간선으로 확정해야 한다는 점, 육지로 둘러싸인 내해로 헌법재판소가 등거리 중간선 원칙을 적용해 확정할 바 있는 천수만 해역과 지리상 자연적 조건이 동일하다는 점, 죽도는 지리적으로 부안군에 가깝고 생활권도 부안군(곰소)으로 특별히 고려할 필요성이 없다는 점, 곰소만 해역에 대해 지속적으로 배타적인 행정관할을 행사해 온 점, 오래 전부터 부안군 주민들이 이용해 왔고 지리·생활적 측면에서 긴밀히 연계해 생활권을 형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강조했다.

부안군 관계자는 “이번 변론에 부안군이 고창군과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월등하다는 점, 해상풍력단지 조성으로 조업구역이 상실되는 주민들의 경제적 이익의 고려 등을 제시하며 쟁송해역에 대한 부안군 관할 유지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강하게 피력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정읍시, 중소기업 지원사업 합동 설명회 성황리에 마쳐

정읍시(시장 유진섭)는 24일 농축산용 미생물산업육성지원센터 1층 회의실에서 2019년 중소기업 지원사업 합동 설명회를 가졌다.

전북중소벤처기업청이 주최하고 정읍시가 주관한 이번 합동 설명회는 전라북도, 중소기업진흥공단, 창업진흥원 등 13개 유관기관에서 참여하고 관내 중소기업체 등에서 100여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지역경제 발전의 주역이 중소기업체인 만큼 관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화 및 소득주도성장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전북중소벤처기업청을 비롯한 참여기관들의 자금지원, 창업지원, 기술지원, 인력지원 등 기관별 지원시책을 중심으로 설명이 있던 후 기관별 전문가가 함께해 기업의 궁금증을 해결해주는 상담도 진행되었다.

이번 설명회에 참석한 업체에게는

2019 중소기업 지원사업, 도 지원사업, 시 지원사업 책자를 제공하여 기관별 지원정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유진섭 시장은 “우리경제의 기틀이며 핵심인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고, 2019년을 정읍 마케팅 원년의 해로 정한 만큼 관내에서 생산되는 중소기업 제품 등 정읍 브랜드를 전국에 알리려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현장행정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읍시는 대한상공회의소 주관으로 2018년 전국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전국 규제평가 기업체감도 부문에서 A등급을 받아 도내 1위를 함으로써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평가받은 바 있다.

/정읍=김대환기자

“엄마의 마음으로 환영합니다”

정읍시, 설 명절 종합상황실 운영 등 명절나기 종합대책 마련

정읍시(시장 유진섭)가 설 명절을 맞아 연휴기간 귀성객과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설 명절 민생안정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우선, 각종 사건·사고를 예방하고 유사 시 신속한 대응체제를 유지해 시민 불편을 해소하도록 2일부터 6일까지의 연휴기간 동안 종합상황실을 운영한다.

관련해 시는 총괄반(☎539-5136)을 비롯한 각 분야별로 재난재해(☎539-5965), 물가(☎539-5604), 교통(☎539-5912), 비상진료(☎539-6137~8), 생활환경(☎539-5721), 상하수도(☎539-6461)의 총 7개의 대책반을 편성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재난재해대책반은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처를 할 수 있도록 상황을 가동하고, 영화관, 전통시장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사전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물가대책상황반은 명절 장바구니 물가와 성수품 관리를 위해 점검반을 편성하여 합동지도와 단속을 내달 8일까지 실시하며, 전통시장 장보기 운동을 전개하여 지역경제와 전통시장 활성과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다.

교통대책반은 연휴 기간 중 생고를 시장과 정읍역, 터미널 승강장 등 상습 정체·병목지점에 교통지도 단속 요원을 특별 배치하여 시민 및 귀성객의 교통 불편을 최소화 하며, 관내 2개소(수성동, 시기동)의 유료공영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하여 주차편의를 증진 할 계획이다.

비상진료대책반은 연휴기간 중 비상



진료대책 상황실을 운영하며, 비상진료기관·휴일지킴이약국과 함께 비상의료체계를 구축해 응급 및 일반 환자의 진료 공백을 방지한다.

생활환경대책반은 쾌적하고 밝은 고향 분위기를 조성 위해 연휴기간 중에는 기동 청소반을 운영해 시가지 주요노선 청소와 생활쓰레기 수거에 나설 계획이다.

이밖에도 정읍시에서는 2019~2020년 정읍 방문의 해의 일환으로, 2월 1일부터 8일까지 정읍시 국민체육센터에서 '2019 설날장사씨름대회'를 개최한다.

또한 설 당일(5일)을 제외한 연휴기간 동안 시립박물관 사천테마전 '친구야~노오을자, 그때처럼', 시립미술관 특별전시 '100년의 기다림-한국군·현대 명화전'을 무료로 개방하여 시민과 귀성객이 가족과 함께 즐거운 명절을 맞이할 수 있도록 했다.

유진섭 시장은 분야별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철저한 대비로 사건·사고를 예방하고, 시민과 귀성객들이 생활에 불편을 느끼지 않고 편안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확고한 비상체제와 근무를 관계부서에 당부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미세먼지 없는 쾌적한 ‘한반도 첫 수도’

고창군, 대기환경정보 알리미 설치사업으로 군민의 건강권 보호

고창군이 날로 심각해지는 대기오염과 미세먼지로부터 군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대기환경 정보 알리미 설치를 확대한다.

고창군(군수 유기상)은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정보를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대기환경정보 알리미 신호등'을 지역 내 주요 지점에 확대 설치한다고 밝혔다.

대기환경정보 알리미 신호등은 대기 중 미세먼지, 오존, 일산화탄소 등 오염 농도에 따라 파랑(좋음), 녹색(보통), 노랑(나쁨),

빨강(매우나쁨) 4단계 색깔로 표시돼 시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대기환경 정보를 제공한다.

군은 올해 총사업비 8400만원을 들여 6곳에 상반기 중 설치를 마무리하고, 7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밖에 고창군은 미세먼지 없는 쾌적한 '한반도 첫 수도'를 위해 친환경 전기자동차 보급,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지원 확대와 도로물청소 차량을 지속 구입할 계획이다.

여기에 현재 여성회관에 운영 중인 대기오염자동측정망을 심원면사무소 옥상에 1개소 더 추가해 대기오염측정망 2개소를 설치해 운영할 방침이다.

유기상 고창군수는 “신속한 미세먼지 정보 제공과 효과 높은 저감 사업 추진으로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 하겠다”며 “군민들은 대중교통이용을 활성화하고, 불법소각 및 농업 잔재물 소각 자제를 부탁 드린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Mulberry Wine**  
You can now enjoy the wild ginseng that you dreamed of!  
Gangsanmyeongju's Mulberry Wine.

청와대 만찬주!  
부안강산뽕주  
선택했습니다.

**청와대에서 즐기는 만찬주!**  
**부안강산뽕주와 함께 오디주의 맛을 느껴보세요.**

오천년 민족의 격조높은 기쁨을 오디 넉넉히 넣고 정성스레 빚어내어 부드럽고 오묘한 맛에 뒤끝이 깔끔함을 한병 술로 빚었습니다. 부안의 변산반도 청정해역의 해풍을 맞으며 영글어져 타 지역보다 당도와 질이 아주 탁월 합니다. 이 질 좋은 오디만을 선별하여 직접 생산 농가로부터 다량 구매하여 군민 소득 증대 사업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부안강산 뽕주**  
Premium Otdi Wine

TEL : 063-584-9960  
www.gangsanwine.com